

중국유학생의 우리성과 정이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체면의 매개효과 검증

남 순 현¹⁾

경북대학교 복지행정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유학생의 고유한 문화정서인, 우리성과 정이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체면의 간접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유학생 385명(남학생 133명, 여학생 205명, 무응답 47명)이다. 본 연구는 2019년 겨울부터 2020년 봄까지 실시되었고, 중국유학생들은 유목적 편의표집에 의해서 표집되었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AMOS 22.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최대우도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성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지만,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우리성이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어느 경로에서도 체면의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정은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정이 하위요인인 인간적 연약성과 타인배려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체면의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중국유학생간의 우리성이라는 강한 연대감이 한국 유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고, 중국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중국유학생에게 체면은 한국의 유학생생활적응에 핵심적인 문화정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각 나라의 고유한 토착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들 고유의 문화정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주요어 : 중국유학생, 우리성, 정, 체면, 대학적응, 삶의 만족도

1) 경북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Email: shnam@kb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최근 대학가에서 외국유학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2021년 1월말 체류외국인은 2,014,433명이고(법무부, 2021), 외국인 유학생은 2014년까지 8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 빠르게 늘어 2021년도에는 151,414명을 기록했다(교육부, 2018; 법무부, 2021).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을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체 유학생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 비율이 43.6%로 전체 유학생의 절반정도를 차지한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이 대학의 구인게시판에는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다문화상당사를 모집하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고, 대학가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4년 한·중 문화교류협정 이후 중국내 ‘한류열풍’이 일어나면서 양국 간의 경제교류는 문화교류로 확대되었고, 한국의 교육시장에는 중국유학생의 유입을 증가시켰다(남순현, 2010). 2003년 8,900명에 불과했던 중국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해서 2010년 6만 7,288명으로 정점을 찍다가 4년 동안 점차 하락하였지만, 2015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9년 4월 7만 1,067명에 달했다(교육통계서비스, 2020) 최근 COVID-19로 국내 교육시장에 중국유학생의 유입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책적으로 중국유학생의 한국 입국 자체를 제한하거나 혹은 유학생 스스로 휴학하고 있다.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서도, 전체 유학생 수는

15만 3,69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6,470명) 감소하였고, 중국유학생수는 43.6%로 19년도에 비해 0.8%(4,037명) 감소하였다(교육부, 2020). 하지만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치·사회·경제·문화교류에서 유능한 인재 확보(이재모, 2008)라는 긍정적인 효과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유학생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증대할 전망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과열된 교육열로 인해 중국학생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외국 유학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중국유학생이 지형적 거리 외에도 생활비, 문화적 동질성, 입학의 용이함 등의 이유로 한국유학을 선택한다. 한류열풍도 이에 커다란 몫을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 대학에서는 중국유학생을 유치하려는 과열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 우수 지방대 유학생 유치 활성화, 그리고 유학생 유치 지원 및 기반구축이라는 3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교육부, 2015). 다시 말해서, 국내 대학의 중국유학생 유치는 국가적으로도 교육산업 발전, 우수 인적자원 확보, 자국의 우호적인 인사 양성과 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한영옥, 2007).

한국의 중국유학생은 ‘개인적 또는 거시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대학 정규과정에서 수학하는 자’라고 정의된다(교육부, 2006). 개념적 정의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은 중국유학생의 학교생활과 그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이다(남순현, 2010). 이는 중국유학생 유치라는 국내

대학 간 과열된 양상 이전에 한국 사회가 먼저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이고, 한국 대학의 학교장면에서 중국유학생의 학교적응과 삶의 질을 제고해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한, 중국유학생을 위한 국내 대학의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졌는지 혹은 한국대학생이 중국유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얼마나 잘 어울리고 다양한 문화로부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유학생의 2명 중 1명은 중국유학생일 정도로 한국사회에 중국유학생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학생의 학교적응은 주위의 시선과 타인과의 교류, 즉 외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인 반면에, 개인의 삶의 질은 유학생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즉 내적인 요인이 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를 각각 독립적인 다른 개념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과열된 교육열 외에도 중국유학생의 유학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남들도 유학하는데 나도 유학해야한다’는 체면의식이다(민귀식, 2017). 이런 체면의식은 또한, 중국유학생의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정화, 2004). 중국유학생에게 체면은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고(한승수, 2005), 체면이 손상됐다는 것은 중국유학생의 신분으로서 중국의 사회적 위상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전정화, 2004)에서, 중국유학생의 우리성은 체면에 영향을 미쳤고, 체면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체면에 민감하고(고재욱, 황선영, 2013), 체면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조용태, 2003). 반면에, 중국유학생의 우리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체면의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며(한승수, 2005), 정이 많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느꼈다(최인재, 최상진, 2002).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의 우리성과 정은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체면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의 우리성과 정이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체면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성(wenness)’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특정 집단을 수식하거나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우리성은 자기와 타인이 공통성이나 관계유사성의 인식을 통해 상호동질감을 경험함으로써 형성하는 사회인지적 집단 정체이다(박정열, 2003). 따라서 한국인에게 ‘우리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이 집단의 정체로 전환되어 자기 정체를 집단과의 관계에서 찾는 ‘자기-함몰적 우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최상진, 박수현, 1990; Choi & Choi, 1990). 한국인에게 ‘우리성’은 한국가족에서 나타나는 자타미분화(自他未分化)의 심리적 연대감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대된 가족의식’, ‘가족성-인간관계 중심적 우리’로 특성화된다고(최상진, 1993; Choi & Choi, 1990).

동일한 유교문화권인 중국에서도 우리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우리와 달리, 중국인의 우리는 ‘내가 포함되지 않은 우리성(我们;

wǒmen, 예, 우리 학생’과 ‘내가 포함된 우리성(咱们; zánmen, 예, 우리 가족)’으로 구분된다(남순현, 2010). 다시 말해서, ‘내가 포함된 우리성(咱们; zánmen)’이 ‘내가 포함되지 않은 우리성(我们; wǒmen)’보다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며, 한국인의 ‘자기함몰적 우리성’에 가깝다. 따라서 중국인의 우리성은 한국인의 우리성처럼 확대된 가족의식이고 자타미분화(自他未分化)의 심리적 연대감을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자기함몰적 우리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 중국유학생의 우리성은 내가 포함된 우리성과 내가 포함되지 않은 우리성 모두를 의미한다. 중국유학생이 한국유학생과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한국문화를 익히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갈 때 나타나는 우리성은 내가 포함되지 않은 우리성이며, 중국유학생끼리의 상호배타적인 일체감을 강조할 때 나타나는 우리성은 내가 포함된 우리성이다.

이처럼 같은 동양권일지라도, 우리성의 개념은 자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유한 토착심리적 특징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성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우리성은 중국유학생과 한국대학생 모두에게서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이지만, 삶의 만족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전정화, 2004; 최인재, 최상진, 2002). 이는 우리성이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성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심리적 연결, 그 자체만으로도 무조건적인 신뢰를 발휘한다(박영신, 김의철, 2005). 따라서 한국 중국유학생이 한국과 한국인에게 높은 신뢰를 형성한

다면, 중국유학생의 ‘내가 포함되지 않은 우리성(我们, wǒmen)’은 한국대학생과의 집단간 상호협력적 행위를 유도(Meyer & Allen, 1984)하면서 학교생활에 높은 적응을 보일 것이고, 반면에 중국유학생의 또 다른 ‘내가 포함된 우리성(咱们, zánmen)’은 중국유학생들 간의 동질성을 증진시켜 한국에서 하나의 ‘편(边, bian)’을 형성하고,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정서 중 하나인 ‘정(情)’은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와 시공간을 공유하고, 상대방에게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다정함과 허물없음을 느낄 때 드는 감정이다(김기범, 2009). 한국에서 정(情)이라는 성격 특질이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인의 심정과 한국문화의 밀착된 부모자녀 관계가 존재한다(최상진, 유승엽, 1994).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서구의 개인주의, 이성적, 독립적 관계와 달리, 정 공감적, 자아미분화적인 특징을 지닌다. 한국인의 정을 바탕으로 한 부모자녀 관계와 상호작용은 자녀의 성격특질로 내재화될 가능성이 높고, 자녀를 정이 많은 아이로 성장시킨다. 즉, 한국인의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부모자녀 관계는 정이 많고 깊은 자녀를 만든다.

동일 문화권인 중국에서도 ‘정(情)’이라는 개념과 현상은 ‘情(qing)’, ‘心情(xinqing)’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나타난다(남순현, 2010). 하지만 ‘정(情)’을 지각하는 정도에 있어서,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남순현, 2010). 이는 한국인에게 ‘정(情)’은 우리성이라는 강한 연대감 안에서 나타나는 강한 친밀감이지만, 중국인에게 ‘정(情)’은 지

켜야 할 도리이고 의무로써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정(情)’과 중국인의 ‘정(情)’은 모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전정화, 2004; 최인재, 최상진, 2002),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최인재, 최상진, 2002).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정(情)’의 속성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간적인 나약함과 지나치게 정이 많은 것은 오히려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상진(2000)은 정이 많다는 것은 매우 비타산적이고, 비이성적이며, 현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정다감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에게 정은 적응적인 기능을 하지만, 인간적 나약함이나 지나치게 정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적응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로써의 ‘정(情)’은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인간적 나약함과 지나치게 정이 많은 것과 같은 ‘정(情)’의 부정적인 속성은 오히려 배신과 사기의 형태로 나타났다(남순현, 2010).

또한, ‘정(情)’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체면의식이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순현, 2010). 본 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의 ‘정(情)’이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도, 동일하게 체면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결과(최인재, 최상진, 2002)를 통해서 볼 때, 정과 적응 간에

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체면(體面)은 몸을 뜻하는 체(體)와 얼굴을 뜻하는 면(面)의 합성어다. 한자 그 자체가 뜻하는 것처럼, 체면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로 정의된다(한글학회, 1994). 서구에서도 체면에 해당하는 ‘face’가 있다. 하지만 서구학자들이 개념화한 체면의 정의는 한국어로 얼굴을 지칭하는 face라는 점에서 동일 개념처럼 보일지라도, 실제 개념적 정의에서는 차이를 지닌다. Goffman(1967)은 face를 자아에 대한 이미지(image of self)라고 정의하였다. Face를 인상관리차원에서 접근한 Brown과 Levinson(1987)은 공적인 자아이미지(public self-image)라고 개념화하였으며, Ting-Toomey(1994)는 정체성 경계 이슈(identity-boundary issue)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서구학자들은 체면을 개인주의 문화에서 self-oriented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서구학자들이 체면이라는 개념을 체면행위나 인상관리처럼,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교적 전통이 강한 동양권 문화에서 체면은 서구의 self-oriented된 face를 의미하는 동시에,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로 정의된다(남순현, 2010; 한승수, 2005). 즉, 동양인에게 체면은 타인과의 관계 또는 처한 상황에 따라 자신이 보여주거나 지켜야 할 것으로써, 다름(예, 상하계급, 지위, 권위 등)을 강조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유교문화가 지배적인 중국의 경우는 한국보다 더 강한 체면문화를 지니고 있다. 중국인의 체면은 ‘사회적 이미지(social image)’를 의미하는 체면(面子; mian zi)과 ‘얼굴(face)’을 의미

하는 체면(脸; lian)으로 구분된다(남순현, 2010). 사회적 이미지를 의미하는 ‘面子(mian zi)’는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된 명성이 성공이나 과시를 통해 위세로 축적되는 개념이다. 얼굴을 의미하는 ‘脸(lian)’은 도덕적 명성에 의해 존경받는 것을 의미한다(한승수, 2005). 따라서 사회적 이미지를 의미하는 ‘面子(mian zi)’가 외적요인과 관련된 체면이라면, 얼굴을 의미하는 ‘脸(lian)’은 내적요인과 관련된 체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교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체면은 서구에서 통용되어 온 사회적 얼굴을 의미하는 동시에, 명예, 능력, 지위, 신분 등을 함축하는 개념이다.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체면은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중요한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행동하고자 한다(김양하, 2005). 중국인의 강한 체면민감성 역시 경제적 부담감을 무릎쓰고 ‘남이 유학하는데 나도 해야지’라는 유학 붐을 부치킨 결과로 보인다. 또한, 체면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보이는데, 체면치레나 체면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전정화, 2004; 최인재, 최상진, 2002). 삶의 적응에서도 중국인의 체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남순현, 2012; 주민욱, 2016). 또한, 체면과 사회적 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본 최상진과 진승범의 연구(1995), 체면과 자아존중감, 통제성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최창호의 연구(1993)와 스트레스와 체면 간의 관계를 살펴본 안근석과 양병창의 연구(2000)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우리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체면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전정화, 2004), 정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체면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남순현,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성과 정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도, 체면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는 우리성과 체면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고(전정화, 2004; 최인재, 최상진, 2002), 체면에 민감할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국인에게 체면은 얼굴이고, 중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자긍심이다. 따라서 유교적 전통이 강한 중국유학생에게 체면이 중요한 문화정서라면, 중국고유의 문화정서인 중국유학생의 우리성과 정이 체면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한국 유학생생활에서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인의 고유한 문화정서인 우리성과 정이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경로에서 체면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는 것이다.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우리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전정화, 2004), 두 민족 모두 우리성이 강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면 또한,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보임으로써 매개효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은 우리성이 강할수록, 체면의식이 높고, 체면의식이 높은 중국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다. 즉, 중국유학생이라는 강한 연대감 안에서 체면이서는 행위는 중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인 반면에, 체면이 깎이는 것, 즉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수치를 불러일으킨다.

한편, 고재욱과 황선영(2013)은 정이 많은 한국인일수록 체면에 민감하다고 하였다. 정이 많은 한국인일수록 체면치레나 체면행위를 많이 하며(조용태, 2003), 한국인의 체면치레나 체면행위는 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한다(최인재, 최상진,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우리성과 정이 미치는 영향과 체면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국유학생의 우리성, 정, 체면,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국유학생의 우리성과 정이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체면이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유학생 385명이다. 중국유학생의 평균 연령은 21.2세($SD = 3.9$)이고, 남학생 133명(34.5%), 여학생 205명(53.2%)이다(무응답 47명). 학년별로는 1학년 42명(10.4%), 2학년 131명(32.4%), 3학년 154명(38.1%), 4학년 41명(10.2%)이다(무응답 17명). 대부분의 중국유학생은 자비유학생이고(267명, 69.4%), 교환학생은 소수에 불과했다(35명, 9.1%). 한국 중국유학생의 유학동기는 자의(129명, 33.5%)와 부모의 권유(102명, 26.5%)에 의한 선택이 대부분이었다. 중국유학생은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좌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다. 중국유학생의 한국어실력을 확인해본 결과, 초급수준 141명(36.6%), 중급수준 155명(40.3%), 고급수준 23명(6.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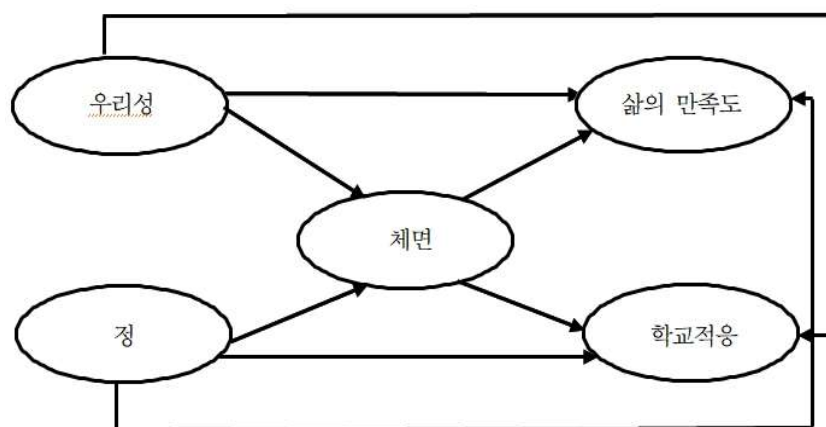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절차

본 연구대상자는 유목적 편의표집과 눈덩이 표본표집에 의해서 표집되었다. 연구자는 표본을 표집하는 과정에서 대학강사, 중국유학생연합회, 국제어학원, 한국 중국유학생과 한국 대학생들의 도움을 받았다. 조사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였다. 설문지는 연구자와 이중언어자의 역번역(back translation)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설문은 가능한 중국유학생의 고유한 문화정서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문항의 의미와 맥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상적인 언어들로 구성하였다.

3. 측정도구

우리성 척도

본 연구에서 중국유학생의 우리성 척도는 최상진과 박수현(1990)이 개념화한 우리성 척도 23문항 중에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우리성 척도는 ‘친밀감’, ‘속박감’, ‘배려’, ‘정’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 문항은 친밀감 7문항, 속박감 4문항, 배려 5문항, 정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성 척도의 친밀감 7문항과 배려 5문항을 사용하여 중국유학생의 우리성을 측정하였다.

친밀감을 묻는 문항으로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이 서로 이해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배려를 묻는 문항으로는 ‘괴롭거나 슬플 때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이며, 전정화(2004)가 한국인의 우리성 척도를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을 때, Cronbach's α 는 .85였고, 본 연구에서 중국유학생에 대한 우리성 척도의 Cronbach's α 는 .85였다.

정(情) 성향 척도

본 연구에서 정(情) 척도는 임영식(1994)이 개발한 정(情) 성향 척도 30문항 중 최인재와 최상진(2002)이 사용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정 성향 척도는 Likert식 7점 척도로, 최인재와 최상진(2002)이 요인분석을 통해 정 성향의 3개 요인, 즉 인간적 연약성, 타인배려성, 다정다감성을 추출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인간적 연약성 .85, 타인배려성 .83, 다정다감성 .69였다(최인재, 최상진, 2002).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정 성향 척도를 측정한 선행연구(전정화, 2004)에서 Cronbach's α 는 .94였고, 본 연구에서 정 성향 척도의 Cronbach's α 는 .86, 인간적 연약성의 Cronbach's α 는 .69, 타인배려성의 Cronbach's α 는 .74, 다정다감성의 Cronbach's α 는 .66이었다.

체면 민감성 척도

본 연구에서 체면척도는 최상진과 김기범(2000)이 개발한 체면 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25문항 중 동일 의미를 반복적으로 묻는 문항 10문항(예, 체면에 민감하다, 늘 체면을 신경쓴다 등)을 제외한 1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무시를 참을 수 없다’, ‘체면 떨어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 ‘체면 때문에 하는 일이 종종 있다’ 등이다. 최상진과 김기범의 연구(2000)에서 체면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이고, Cronbach's α 는 .84였다. 본 연구에서 체면 민감성 척도의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학교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 재한 중국유학생의 대학생생활적응척도는 Weissman과 Paykel(1974)의 사회적응척도(Social Adjustment Scale, SAS)를 중국 유학생에게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Weissman과 Paykel(1974)이 개발한 사회적응척도(Social Adjustment Scale, SAS)는 학업수행, 여가활동, 대인관계 등의 영역에서 적응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가사, 직장생활과 가족관계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Weissman과 Paykel의 연구(1974)는 우울집단과 통제집단의 여성 40명을 비교한 연구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고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SAS의 적응 영역을 중국유학생의 결석유무, 학업성적, 친구관계,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을 묻는 문항들로 재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결석한 날이 얼마나 됩니까?', '학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까?' 등이다. 남순현의 연구(2021)에서 학교적응 척도의 Cronbach's α 는 .89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증에서 척도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RESEA .07, CFI .89, TLI .92, NFI .91). SAS는 Likert식 5점 척도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척도는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가 개발한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을 사용하였다.

SWLS는 Likert식 7점 척도로 5문항이며, '대체적으로 봐서 나는 내 이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활조건을 갖고 있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등이 포함된다. SWL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이고,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는 .87이었다(Diener et al., 1985). 본 연구에서 SWLS의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분포의 정상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상관분석을 통해서 변인간 관계를 탐색하였다. 둘째, 구조방정식(the structural equation)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 검증시, Kline(2005)과 홍세희(2000)가 추천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goodness of fit), 즉 절대 적합도지수 χ^2 값, RMSEA와 상대 적합도지수 GFI, TLI, NFI를 참고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시, 잠재변인에 해당하는 측정변인의 수가 5개 이상 많은 변인들에 대해서는 문항 꾸러미 기법(item parceling)을 사용하여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 변수를 조정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셋째, 본 연구에서는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 방법(bias-corrected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체면(chemyon)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결측치가 분석에서 오

표 1. 측정변인들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우리성	정			체면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
		인간적 연약성	타인 배려성	다정 다감성			
우리성	1.00						
정							
인간적 연약성	.36**	1.00					
타인배려성	.48**	.48**	1.00				
다정다감성	.44**	.41**	.36**	1.00			
체면	.24**	.31**	.32**	.23**	1.00		
삶의 만족도	.18**	-.04	.03	.01	-.04	1.00	
학교적응	-.19**	-.13**	.00	.14**	.35**	.23**	1.00
평균	3.44	3.56	3.84	3.43	4.64	2.88	2.44
표준편차	.68	.78	.79	.88	1.78	.82	.58
왜도	.84	-.71	-.69	-.17	.82	.73	.48
첨도	4.17	1.81	2.21	.17	1.56	1.73	.14

** $p < .01$.

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FIML은 다른 결측치 처리 방법에 비해 편의가 적고, 정확한 추정방법으로 알려져 있다(Arbuckle,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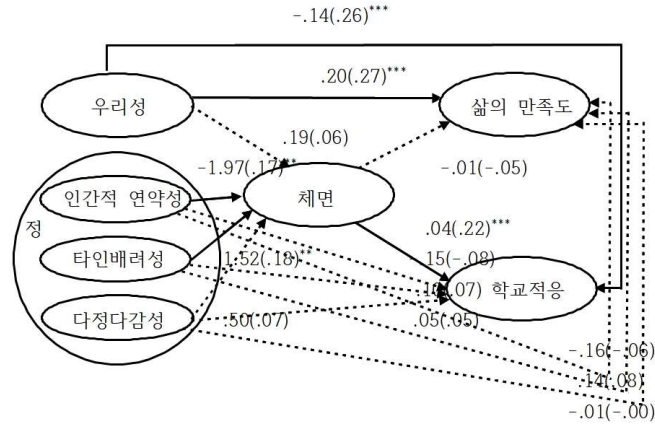
III. 결과 및 해석

1. 중국유학생의 우리성, 정, 체면, 삶의 만족도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의 하단과 같다.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았고, 분포의 정상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DeCarlo, 1997).

상관분석을 통해, 측정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 상단과 같다. 첫째, 우리성은 정의 인간적 연약성에 .36, 타인배려성에 .48, 다정다감성에 .44, 체면에 .24, 삶의 만족도에 .18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학교적응에는 -.19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인간적 연약성은 체면에 .3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삶의 만족도에 -.04, 학교적응에 -.13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주. 제시된 계수는 비표준화계수이며, 표준화계수는 괄호 안에 제시하였음.

* $p < .01$. *** $p < .001$.

그림 2. 연구모형 검증

표 2.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

χ^2	CMIN/DF	RMSEA	GFI	TLI	NFI
29.76 (df, 2), $p = .00$	14.88	.09	.99	.97	.97

타인배려성은 체면에만 .32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다정다감성은 체면 .23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학교적응에 -.14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체면은 학교적응에 .35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학교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23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2. 중국유학생의 우리성과 정이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체면의 매개효과

연구모형 검증

그림 1의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2

와 표 2와 같다.

표 2는 그림 2에 대한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이다. 본 연구에서 모형적합도 지수 χ^2 값은 29.76(df = 2, $p = .00$)으로 적합도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χ^2 (특정한 기준없이 작을수록 바람직함)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지수이기 때문에(우종필, 2012), 표본크기에 비례하여 커지는 경향성이 있다. 따라서 모형적합도를 판단할 때는 χ^2 값 외에도 다른 적합지수를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 절대 적합도지수 RESEA는 .09, 상대 적합도지수 GFI은 .99, TLI는 .97, NFI는 .97이었다. 본 연구에서 RE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leq 0.05 \sim 1$ 바람직)는 .09로 수용가능범위에 다소 큰 편이었

표 3. 경로계수 측정치

모수	<i>B</i>	<i>SE</i>	β	<i>T</i>	<i>p</i>
우리성 → 체면	.19	.19	.06	.97	.324
인간적 연약성 → 체면	-1.97	.65	-.17	-3.03	.002
타인배려성 → 체면	1.52	.49	.18	3.11	.002
다정다감성 → 체면	.50	.38	.07	1.34	.182
체면 → 삶의 만족도	-.01	.01	-.05	-1.02	.310
체면 → 학교적응	.04	.01	.22	4.23	.000
우리성 → 삶의 만족도	.20	.05	.27	4.40	.000
우리성 → 학교적응	-.14	.03	-.26	-4.43	.000
인간적 연약성 → 삶의 만족도	-.16	.16	-.06	-1.01	.311
인간적 연약성 → 학교적응	-.15	.11	.08	1.41	.158
타인배려성 → 삶의 만족도	.14	.12	.08	1.24	.215
타인배려성 → 학교적응	.10	.08	.07	1.18	.240
다정다감성 → 삶의 만족도	-.01	.09	-.00	-.02	.986
다정다감성 → 학교적응	.05	.06	.05	.85	.393

다. 하지만 CFI(Comparative Fit Index: ≥ 0.90 이 바람직), TLI(Tuc Ker-Lewis Index: ≥ 0.90 이 바람직)와 NFI(Normed Fit Index: ≥ 0.90 이 바람직) 모두 .90 이상으로 수용가능한 범위에 속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은 연구모형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우리성은 체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성은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beta = .27$, $\beta = .26$ 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우리성은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에 모두 직접 영향을 미쳤지만, 체면의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의 하위요인에서 인간적 연약성은 체면에 $\beta = -.17$ 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타인

배려성은 체면에 $\beta = .18$ 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다정다감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정의 하위요인, 인간적 연약성, 타인배려성과 다정다감성은 모두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정의는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직접효과를 보이지 않지만, 정의 하위요인 중에서 인간적 연약성과 타인배려성은 체면의 간접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매개효과검증

본 연구에서 정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체면의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효과분해를 실시한 결과, 인간적 연약성과 타인배려성과 학교적응 간에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ootstrapping을 통해서,

표 4.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Bootstrap

구조경로	간접효과		Bias-corrected bootstrapping
	β	SE	
인간적 연약성 → 체면 → 학교적응	.04.	.02	(.01, .44)
타인배려성 → 체면 → 학교적응	.04.	.02	(.12, .61)

인간적 연약성과 타인배려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체면의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적 연약성과 타인배려성은 신뢰구간범위에서 영가설의 값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Shrout & Bolger, 2002),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으로 유학 온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유한 문화정서인 우리성과 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칠 때 체면의 매개효과와 우리성과 정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체면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유학생의 우리성, 정, 체면,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국유학생의 우리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정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중국유학생의 우리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정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성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최인재와 최상진(2002)의 결과를 지지한다. 하지만 한국인의 깊은 정 성향은 심

리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최인재와 최상진(2002)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체면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중국유학생의 체면은 한국에서 중국인이라는 자부심과 중국문화교류라는 측면에서 대외적인 얼굴일 수 있지만, 심리적 안녕감이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체면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전정화, 2004; 최인재, 최상진, 2002) 결과를 지지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유학생의 우리성은 학교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한국 중국유학생이 우리라는 강한 연대의식 속에서 중국유학생끼리 어울려서 생활할수록, 한국 대학 내 적응을 잘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에, 중국유학생의 정의 하위요인인 인간적 연약성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다정다감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중국유학생의 인간적인 나약함이나 정이 많은 성향은 오히려 학교적응을 방해하는 요인이지만, 다정함은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중국유학생의 우리성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유학생의 정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결과는 중국유학생들 간의 우리라는 강한 연대의식은 한국문화와의 상호교류나 한국대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배타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중국유학생간의 어울림이 학교적응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교사의 우리성이 강할수록 학교적응을 잘한다는 유정원의 연구(2014)를 지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학생이라는 신분은 중국을 대표하는 민간교류단일 수 있지만, 중국유학생끼리의 어울림과 강한 일체감은 오히려 대학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의 체면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체면에 민감한 유학생일수록 학교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재한 중국유학생의 체면이 자신이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강한 자부심(한승수, 2005)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학교적응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체면에 민감한 중국유학생일수록, 체면을 세우거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더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사실을 의미한다.

둘째, 중국유학생의 우리성과 정이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체면의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유학생의 우리성이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체면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체면의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유학생끼리의 강한 연대감과 일체감은 심리적인 위안과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한국학생과 배타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중국유학생끼리의 긴밀한 상호교류는 한국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데는 방해요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유학생이라는 우리 안에서 체면을 세우고, 체면이 깎이는 것은 창피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우리성이 집단 간 상호협력적인 행위를 유도한다는 Meyer와 Allen의 연구(1984)를 지지한다.

따라서 중국유학생의 우리성은 한국 대학생을 포함하는 우리(我们, wǒmen)가 아닌, 중국유학생끼리의 우리(咱们, zánmen)인 것이다. 우리라는 연대의식 속에서 중국유학생에게 체면의 사회적 이미지나 얼굴은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재한 중국유학생의 우리 경험은 중국유학생이라는 신분과 일체감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유학생의 정이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체면의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정의 인간적 연약성과 타인배려성은 체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체면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매개변인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Baron & Kenny, 1986). 반면에, 본 연구에서 정의 하위요인인 인간적 연약성과 타인배려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체면이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한국유학생생활에서 중국유학생의 체면은 ‘面子(mian zi)’, 즉 사회적 이미지이고,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이였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중국유학생의 인간적 연약성에 이끌린 정이 오히려 체면을 떨어뜨려서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타인배려적인 정은 체면을 세우고 유지시킴으로써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타인을 배려하는 한국 중국유

학생일수록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이는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중국유학생의 도리이면서 의리와 같은 깊은 정은 자신의 얼굴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체면을 세우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유약하고 나약한 유학생은 손상된 체면으로 인하여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중국유학생에게 정은 지켜야할 도리이지만, 인간적 나약함이나 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삶의 질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남순현의 연구(2010)를 지지한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유학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중국유학생의 고유한 문화정서인 우리성, 정, 체면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국내 많은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중국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지만, 중국유학생 유치 그 이전에 그들이 한국을 더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자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대학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학생에 대한 상담에서 그들 문화에 대한 이해없이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유학생은 단기간 한국에 머물지만, 그들이 지니고 있는 민간외교관으로서의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언어나 문화에 대한 지식의 부족일 수 있지만,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걸맞게 대학 내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것이고, 특히 유학생에 대한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유한

문화정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국내대학이 중국유학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그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중국유학생을 위한 학교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중국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어지원 외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유학생끼리의 강한 연대가 오히려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대학차원에서 한국학생과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중국유학생과 한국학생을 멘토와 멘티로 연계하여 중국유학생이 한국문화를 익히고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한국학생이 학업의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이다. 중국유학생이라는 특정집단을 표집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표집의 용이성 때문에, 임의표집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표본의 대표성의 결여는 일반화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제한 중국유학생을 일반화할 수 있는 표본과 표집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김양하, 2005; 남순현, 2010; 최상진, 1993; 한승수, 2005; Brown & Levinson, 1987; Choi & Choi, 1990; Church, 2000; Goffman, 1967; Ting-Toomey, 199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문화권에서 고유한 문화정서는 차이를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우리성, 정, 체면과 같은 문화정서 외에도 다양한 문화정서들이 동일문화권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학생이다. 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 연구를 수행해봄으로써, 동일한 결과가 탐색되는지 혹은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만약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유학생이라는 독특한 신분과 상황으로 인한 결과라고 일반화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면, 이는 자국의 고유한 문화정서에 기인한 결과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유학생의 대학생활에서 그들의 고유한 자국의 토착문화에 대한 이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념화된 척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동양문화에서도 민족마다 그들의 토착정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상진과 연구진들이 개념화한 척도를 개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하위요인만 사용하거나 일부 문항을 삭제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척도의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개념화한 척도를 표준화한 후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재욱, 황선영 (2013). 한국노인의 사회심리특성과 노인교육·여가 프로그램유형 관계에 관한 연구: 정, 체면, 젠더(성)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0, 109-135.
- 교육부. (2006). Study in Korea Project. 내부정책 자료. <https://www.moe.go.kr>에서 2006년 10월 29일 인출
- 교육부. (2015).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https://www.moe.go.kr>에서 2015년 7월 8일 인출
- 교육부. (2018). 2018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에서 2018년 11월 5일 인출
- 교육부. (2020). 2020년 교육기본통계 결과발표. <https://www.moe.go.kr>에서 2020년 8월 27일 인출
- 교육통계서비스. (2020).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https://www.kess.kedi.re.kr/frontPop/publView?publItemId=80235&survSeq=2019&publSeq=3>에서 2020년 12월 7일 인출
- 김기범 (2009). 정 마음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47-163. <https://doi.org/10.21193/kjspp.2009.23.1.009>
- 김양하 (2005). 상징소비의 문화, 사회적 의미분석: 상징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개인적, 사회적 요인의 다차원적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순현 (2010). 중국유학생의 학년별 학교생활

- 적응유형분석 및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정체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4(4), 977-998.
- 남순현 (2012).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대인교류 기제와 한국생활적응: 체면과 눈치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4), 23-60.
- 남순현 (2021). 중국인인가? 유학생인가? 중국 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2), 745-770.
<https://doi.org/10.23844/kjcp.2021.05.33.2.745>
- 민귀식 (2017. 4. 12). 중국의 한국유학열풍이 한국에 ‘유학생 10만 시대’ 열었다. *중앙일보*, pp. 26.
- 박영신, 김의철 (2005).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21-55.
- 박정열 (2003). ‘우리’집단의 심리적 세분화와 인상형성에 있어 집단정보(우리-남)와 중심특질(따뜻한-차가운)의 점화효과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법무부. (2021). 2021년 1월호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https://www.moj.go.kr>에서 2021년 3월 4일 인출
- 안근석, 양병창 (2000). 대학생의 주관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와 체면, 문화적 자기개념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7, 51-83.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유정원 (2014). 교사의 우리성과 문제대응방식이 학교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균 (2015). 대학교육의 국제화와 외국인 학생에 대한 주변화 담론의 구성에 대한 연구: 광주지역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2), 17-31.
- 이재모 (2008).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실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식 (1994). 핑계 듣는 사람의 특성과 핑계 유형이 핑계 대는 사람에 대한 처벌과 호감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재은 (2013). 한국 대학생의 이문화 역량에 대한 이해와 행동 반응. *아시아교육연구*, 14(3), 231-259.
<https://doi.org/10.15753/aje.2013.14.3.010>
- 전정화 (2004).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체면과 우리성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태 (2003). 특수교육 교사의 정(情), 체면(體面)과 스트레스의 관계. *발달장애연구*, 7(1), 75-88.
- 주민욱 (2016). 중국인의 체면유형에 대한 실증연구. *중국학연구*, 75, 275-297.
- 최상진 (1993).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리’의식 비교.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29-244.
- 최상진 (2000).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최상진, 박수현 (1990).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

- 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69-78.
- 최상진, 유승엽 (1994). 한국인과 일본인의 ‘情’에 관한 심리학적 비교 분석. *인문학연구*, 21, 139-170.
- 최상진, 진승범 (1995). 한국인의 눈치의 심리적 표상체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511-521.
- 최인재, 최상진 (2002). 한국인의 문화 심리적 특성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情), 우리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55-71.
- 최창호 (1993). 체면이 명품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3(1), 25-31.
- 한글학회. (1994). *한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 한승수 (2005). 자아 표현적 소비성향이 브랜드 애착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21-363.
- 한영옥 (2007). 유학생 유치규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pp. 243-277). Mahwah, NJ: Lawrence Erlbaum.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rown, P., & Levinson, S. C.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i, S. C., & Choi, S-H. (1990). *We-ness: The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Seoul, Korea.
- Church, E. B. (2000). The value of creative play. *Scholastic Parent & Child*, 7(6), 38-42.
- DeCarlo, L. T. (1997). On the meaning and use of kurtosis. *Psychological Methods*, 2(3), 292-307.
<https://doi.org/10.1037/1082-989X.2.3.292>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 Goffman, E. (1967). *Interaction ritual: Essays in face-to-face behavior*. Chicago: Aldine.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Guilford Press.
- Meyer, J., & Allen, N. (1984). Testing the “side-bet theory”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S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3), 372-378.

- <https://doi.org/10.1037/0021-9010.69.3.372>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https://doi.org/10.1037/0022-0167.45.1.1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https://doi.org/10.1037/1082-989X.7.4.422>
- Ting-Toomey, S. (1994). *The Challenge of facework: Cross-cultural and interpersonal Issues*. SUNY Press.
- Weissman, M. M., & Paykel, E. S. (1974). *The depressed woman: A study of social relation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 차원고접수 : 2021. 03. 19.
수정원고접수 : 2021. 08. 06.
최종게재결정 : 2021. 09. 27.

Effects of We-ness and *Cheong* on Chinese Students' Life Satisfaction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Chemyon* as a Mediator

Nam, Soonhyeon

Dept. of Welfare Administration, Kyungbok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chemyon* (social face, 體面) when we-ness and *cheong* (affection, 情) influence Chinese students'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nd life satisfaction.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385 Chinese students in South Korea from November 2019 to February 2020 using purposive sampling metho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using AMOS 22.0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We-ness negatively affected university adaptation, yet positive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There were no indirect effects of *chemyon* on university adaptation and life satisfaction. *Cheong*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university adaptation and life satisfaction. Human tenderness and caring about others' *cheong* were shown to be a completely mediated effect on university life adaptation. In this research, we-ness among Chinese students is an important concept that leads to enhanced life quality, and *chemyon* implies national pride in terms of representing China when adapting to life in South Korean universities. Thu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counselors should understand and consider the indigenous emotions pertaining to each country when counseling international students.

Keywords: Chinese students, we-ness, cheong, chemy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life satisfaction